함께하는 평화
함께여는 미래

KBS 사보

2019년 9월 6일 금요일
Vol.685



지역 프로그램, 32년 만의 대상 쾌거…역대 두번째

대구·경북의 어두운 인권 사건들을 10부작으로 재구성한 KBS 대구방송총국의 〈기억, 마주서다〉가 제46회 한국방송대상 대상에 선정되는 등 KBS 콘텐츠가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며 올해 방송대상에서 대거 인정받았다.



분야	부문	수상작(자)
대상		KBS 대구 특별기획 10부작 〈기억, 마주서다〉
작품상	지역뉴스보도	KBS 부산 〈뉴스9〉 심층기획 '센텀2지구, 정의로운 개발인가'
	시사보도TV	〈시사기획 창〉 '조선학교-재일동포 민족교육 70년'
	생활정보TV	〈회사 가기 싫어 2019〉 1회 '부장의 자리엔 졸대가 지나지 않는다'
	다큐멘터리TV	〈KBS 스페셜〉 '플라스틱 지구' 2부작
	지역 다큐멘터리TV	KBS 대구 특별기획 10부작 〈기억, 마주서다〉
	사회공익	〈KBS 스페셜〉 '주문을 잊은 음식점' 2부작
개인상		이태웅(스포츠제작보도), 권순두(카메라기자), 진수아(영상그래픽), 유민상(코미디언)

수신료의 가치 실현…시청자에 큰 울림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9월 3일 방송의 날을 맞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2019년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KBS 대구총국의 특별기획 10부작 〈기억, 마주서다〉가 대상을 받았다. 지역 콘텐츠가 대상을 받은 것은 1987년 이후 32년 만이며 역대 두번째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연과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폭동'으로 수식되었던 대구 10월 사건, '최악의 사법살인'으로 불리는 인혁당 재건위와 남조선 해방전략당 사건 등 '개인의 기억'으로만 존재하며 잊혀진 우리 근·현대사의 이면을 마지막 증언자의 목소리로 발굴한 점이 높은 평을 받았다. 단순히 대구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서, 한국 현대사를 규정짓는 수많은 아픔과 그 아픔을 기억해내야만 하는 우리의 과제를 일깨워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줬다는 평이다.

석 달에 걸쳐 10편의 다큐멘터리를 방송한 KBS 대구총국의 지우진 PD는 시상식에서 "이 작품은 대구·경북뿐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역사적 사건 10개를 모아 만든 프로그램"이라며 "이 상은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출연해 증언해주신 분들을 대신해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밖에도 KBS 부산총국의 심층기획 〈뉴스9〉 '센텀2지구, 정의로운 개발인가', 〈시사기획 창〉 '조선학교-재일동포 민족교육 70년', 〈회사 가기 싫어 2019〉 1회, 〈KBS 스페셜〉 '플라스틱 지구', 〈KBS 스페셜〉 '주문을 잊은 음식점' 등이 작품상을 수상했다.

INSIDE | **1면** 한국방송대상 대상 수상 **2면** 방송의 날 사장 기념사 **4면** 9월 신작 드라마 **6면** 디아스포라 프로젝트



방송의 날 사장 기념사

56번째 방송의 날… KBS 콘텐츠의 힘을 보여줍시다

올해 9월은 의미를 짚어볼 날들이 많습니다. 먼저 방송의 날입니다. 1947년 9월 3일 미국 애틀랜타 시에서 열린 국제무선통신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독자적 호출부호 HL을 배당받았습니다. 그 의미는 전파 주권의 독립이었습니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방송의 날'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1989년 입사 이후 매년 맞이했던 방송의 날이 해마다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현대사가 역동적이었고 방송·통신기술의 발전은 빨랐습니다. 올해 방송의 날도 역시 작년과 또 다르게 다가옵니다.

대구 〈기억, 마주서다〉의 대상 수상… 지역 방송 활성화 메시지

이번 방송의 날, KBS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대구총국에서 제작한 〈기억, 마주서다〉(10부작 다큐멘터리)가 40여 지상파 채널의 쟁쟁한 후보작들을 제치고 한국방송대상 '대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는 "대구·경북에서 지난 100년 동안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지역민의 기억을 통해 들여다봄으로써 이 지역의 정체성을 다시금 성찰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구총국의 대상 수상은 작품성에 대한 인정을 넘어 지역 방송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회사는 조만간 지역 방송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할 것입니다. 지역정책실에서 작년부터 두 가지 지역국 시범사업을 선정해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왔는데, 특히 제주총국의 〈7시 오늘 제주〉(40분 로컬 뉴스 프로그램)가 제주지역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7시 오늘 제주〉 포맷은 일부를 보완해서 9개 전 지역총국에서 조만간 전면 실시할 예정인데, 때마침 대구총국의 〈기억, 마주서다〉가 큰 상을 받게 돼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 OTT '웨이브(wavve)' 출범은 KBS 역사의 한 획 될 것

방송의 날 보름 후인 9월 18일, 지상파 3사와 통신회사 SKT가 결합한 통합 OTT 법인 웨이브(wavve)가 출범합니다. 웨이브의 탄생은 KBS 역사에서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일입니다. 72년 전 있었던 전파 주권의 독립처럼 말입니다. 인터넷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OTT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KBS를 포함한 지상파 3사가 연합 OTT인 푹(POOQ)을 운영해 왔는데, 이제는 국내 대형 통신회사가 참여하는 더 강력한 OTT로 재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상파 3사와 SKT는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 같은 거대 글로벌 미디어 기업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휴했습니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우리에게 좀 두려운 존재였죠. 이미 유럽에서 방송 시장을 많이 장악했고 최근 한국 시장에서도 큰 주목의 대상이었습니다. 웨이브가 이런 배경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토종 OTT라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넷플릭스와도 부분적으로 유연하게 제휴를 할 것이지만 앞으로 KBS는 많은 제작비 투자가 필요한 대형 드라마와 예능 콘텐츠, 소위 '킬러 콘텐츠' 제작을 위해 이 웨이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9월 30일 첫 방송 예정인 월화 드라마 〈조선로코-녹두전〉은 제작비 대부분을 바로 이 웨이브에서 투자받았고, KBS 2TV와 웨이브에서 동시에 방송 또는 서비스됩니다.

'콘텐츠의 힘'… 가을 수시 조정 통해 선택과 집중

이번 방송의 날을 맞으며 다시 한 번 '콘텐츠의 힘'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앞서 〈기억, 마주서다〉 10부작 다큐멘터리는 깊이 있는 주제 의식과 함께 뛰어난 작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구·경북지역을 넘어 한국사회 전체에 주는 울림이 매우 큽니다. 드라마 〈조선로코-녹두전〉도 일차적으로 작품이 우수해야만 지상파 채널인 2TV에서든, 아니면 디지털 플랫폼인 웨이브 OTT에서든 화제성과 시청률을 높이고 광고 및 콘텐츠 판매를 통해 높은 수익도 올릴 수 있습니다.

9월 16일 예정인 1, 2TV 프로그램 가을 수시조정도 KBS 콘텐츠의 힘을 강화하는 계기입니다. 특히 이번엔 그동안 분산돼 있던 시사 프로그램들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영향력을 키우는데 역점을 뒀습니다. 〈추적 60분〉과 〈KBS 스페셜〉의 경우, 둘을 해체하고 다시 결합해 목요일 밤 10시 〈다큐 인사이트〉, 금요일 밤 10시 〈시사 직격〉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KBS가 다큐멘터리 명가의 위상을 되찾고 한국사회의 주요 어젠다를 견인하는 KBS의 콘텐츠의 힘을 보여줄 수 있길 기대합니다.

KBS가 지상파를 넘어서 공영서비스미디어(Public Service Media)로 진화해 가야 하는 이 시점에서 맞는 2019년 방송의 날, 72년 전 '전파 주권 독립'의 진정한 의미와 함께 KBS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콘텐츠의 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KBS 한국방송 사장 양승동

지역 방송 활성화 1차 설명회…이사회 보고도

계획 마련 후 노동조합과 협의 또는 합의, 2차 설명회도


지난 8월 14일 진주국에서 지역 방송 활성화 설명회가 열렸다.

지역 방송 활성화를 위한 지역 순회 설명회가 지난달 8일부터 20일까지 7개 지역국에서 직원과 시청자위원,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의 의견 수렴에 특히 역점을 뒀다. 지역 정책실은 설명회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방송환경에서 지역국의 생존 전략이자 새로운 기능의 모색, 수신료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임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했다. 설명 내용과 수렴된 의견은 8월 28일 이사회에도 보고됐다.

지역국 관련 KBS의 기본 방향은 지역의 자율적인 편성과 제작, 그리고 리소스 운용 권한 확대이다. 지역국의 방송, 기술, 총무 업무를 일부 총국으로 통합하고, 집중된 재원과 인력을 원동력으로 삼아 지역 시청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11월부터 〈7시 오늘 제주〉 형식을 전 총국에서 주 1회 방송하고, 이후 광주총국의 뉴미디어 서비스도 다른 총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국의 뉴스와 정보는 늘어나는 뉴스 편성 시간에,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지금보다 더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국의 문화·미디어 교육 사업도 강화된다. 노래교실, 문화강좌 등 지역 문화행사는 지금보다 더 충실하고, 규모 있게 마련한다. 시·도 교육청과 연계한 '미디어교육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지역 1인 미디어와 마을 라디오에는 제작공간과 장비를 제공하고, 제작과 관련된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회사는 이와 관련해, 관련부서들로 지역 방송 활성화 실무 TF를 구성하는 한편, 총국의 보도 책임자 워크숍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사는 이를 통해 도출한 추진 방안을 노동조합과의 협의 또는 합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후 지역 설명회를 재차 진행할 계획이다.

3면에 계속

일문일답

지역 방송 활성화…어떤 방안을 검토 중인가

지역 방송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책임을 맡고 있는 김영한 지역정책실장에게 현재 검토 중인 계획의 내용을 들어보았다.

지역국의 폐쇄 또는 단계적 폐쇄 계획 아닙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향후 지역(총)국의 기능 조정은 지역총국을 중심으로 보도 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지역국의 현재 라디오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역정보를 보다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국은 지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이 강화될 것입니다.

추진 중인 지역(총)국 기능조정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역국의 방송, 기술, 총무 업무 일부를 총국으로 통합해 1TV, 1R 뉴스 제작과 송출을 총국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역국은 기존 라디오 방송제작과 수신료, 문화사업, 교육 업무를 계속 맡게 될 것입니다.

지역(총)국 기능조정을 왜 합니까?

지상파 방송사의 구조적 위기상황 속에서 지역 방송은 더욱 심각합니다. 만성적 재정난, 인력난에 콘텐츠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는데, 지역의 요구는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현 조직 체계와 인력 구조로는 이런 요구를 감당할 수도, 지역성 구현과 분권 강화라는 공영방송의 책무도 다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지역국 관할 지역 뉴스가 축소되고 홀대받는 것 아닙니까?

보도 인력을 총국에서 운용하더라도 현재의 지역국 관할에서 여전히 취재활동이 이뤄집니다. 지역국 관할 지역의 뉴스 분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쿼터제도 검토 중입니다. 역량 집중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그동안 지역국에서도 소외받던 시·군 관련 보도를 늘리고 지역 심층, 탐사보도와 시사 프로그램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지역민들의 중요한 문화공간으로서 지역국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 시청자의 참여와 공유를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입니다. 노래 교실, 교양 강좌 등의 문화 행사는 계속 운영합니다.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올바른 미디어 이용 방법, 콘텐츠 제작과 유통 등의 교육 중심지로 육성합니다. 나아가 1인 미디어나 풀뿌리 언론, 마을 공동체 라디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허브 기능을 담당하겠습니다. 본사 주요 프로그램의 지역 공개 방송도 늘리겠습니다.

총국 중심 지역 방송 활성화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디어 기술 발달로 지역성 개념은 지리적 공간에서 벗어나 생활권과 문화적 지형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시설 투자를 요구하는 지상파 송출 시스템을 효율화하고, 모바일 콘텐츠 등 다양해진 기호와 욕구에 호응해야 분권과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공영방송의 책무가 가능합니다. 취재는 지역에 더 밀착해서 지역성을 구현하고, 편성과 제작은 광역거점으로 집중해서 지속 가능한 지역 방송을 만들어야 합니다.

2004년 7개 지역국 통·폐합 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불신이 큰데요?

지역의 상실감과 불신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이 지역국 폐쇄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신료 현실화 등 공사 재정이 안정되면 새로운 방식의 지역국 활성화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역국별 수신료 수입보다 예산이 적은데 수신료 가치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닙니까?

수신료는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인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내주신 수신료는 전국 단위 뉴스나 프로그램에도 사용됩니다. 지역국 수신료 수입보다 배정예산이 적다는 이런 주장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주와 광주의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총국이 4월부터 지역 아이템만으로 자체 제작해 매일 40분 방송하는 〈7시 오늘 제주〉(월~목) 모델을 11월부터 전 총국에서 우선 주 1회 방송합니다. 광주총국은 뉴미디어추진단이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플랫폼으로 유통 중인데 내년부터 이를 전 총국으로 확대합니다.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예산을 지원합니다.

향후 추진 방안과 덧붙이고픈 말은?

현재 지역정책실에서 검토 중인 계획안은 사내외 의견수렴과 결정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최근 지역국 간담회를 통해, 정확하지 않은 지역정책 방안들이 사내외에 유포되면서 지역사회와 직원들의 걱정이 크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향후 또 한 번의 설명회 과정을 통해 회사 지역정책을 정확하게 알리고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또한 정년이 임박한 지역국 직원들은 지역국 근무를 유지토록 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디지털 스튜디오가 찾아옵니다

'라이브' 콘텐츠 중요성 UP… 제작·송출 모두 가능



KBS 디지털뉴스에서는 지난 2일과 3일 조국 장관 후보자와 자유한국당의 기자간담회 현장을 유튜브와 카카오TV를 통해서 약 10시간 동안 생중계했다. 최대 동시 접속자가 각각 약 14만, 10만에 이를 정도로 관심이 집중됐다. 이같은 '라이브' 콘텐츠의 중요성은 미디어 시장, 특히 뉴스 영역에서 커지고 있다. 구글과 네이버, 다음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앞다퉈 라이브 기능을 강화하고 전략적으로 해당 콘텐츠에 클립 영상보다 더 많은 노출 혜택을 주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가 TV를 수중계하고 클립으로 만드는 단순한 유통 방식에서 벗어나 '라이브'라는 새로운 서비스 영역으로 진화 중인 것이다. 이를 위해 KBS에 그동안 없었던 '라이브' 콘텐츠 전용 장비를 갖춘 공간이 들어선다. 보도본부는 10월 초 완공을 목표로 신관 4층에 '디지털 라이브 스튜디오'를 착공했다. 기존 업무공간을 조정해 만들다 보니 면적이 100㎡ 정도로 소박하지만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라이브' 송출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전용 공간이다.

EASY, LIVE, ALL-IP 핵심 콘셉트로

디지털 라이브 스튜디오 콘셉트의 핵심은 EASY, LIVE, ALL-IP 3가지이다. 우선, 누구나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제작과 송출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설계됐다.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면 '원 맨 오퍼레이션'이 가능하다. 둘째, 원 터치 조작으로 유튜브나 페이스북, 기타 포털 등에 라이브 송출이 가능한 것은 물론 TV 방송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웠던 PC 화면이나 캡처 파일, 실시간 채팅창 등을 실시간으로 화면에 삽입할 수 있다. 끝으로 스튜디오에서만큼은 SDI 동축케이블 사용을 배제하고 모든 신호가 IP 기반이며 스튜디오 기본 카메라도 UTP케이블만을 이용하여 연결된다. (기존 장비도 컨버터를 이용해 사용할 수 있다.)

차별화된 재난방송도 가능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재난방송도 가능해진다. KBS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TV 재난방송 전후 더 많은 현장정보와 피해예방, 복구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하나의 채널에서 무제한으로 영상을 스트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 CCTV와 드론 재난영상들을 동시에 송출하는 차별화된 재난 방송도 가능하게 된다.

KBS 드라마
올 가을, 안방극장을 사로잡는다!

9월, KBS는 따뜻하면서도 흥미진진한 신규 드라마 3편을 선보인다.
월화·수목 미니시리즈에 주말연속극까지… 올가을 KBS 드라마가 풍성한 재미와 감동을 안방극장에 선사한다.

월·화는 색다른 청춘 사극으로!



여장 남자와 예비기생의 기상천외 반전 로맨스!

〈조선로코-녹두전〉

남장여자? 이번엔 '여장남자'다! 과부로 변장해 과부촌으로 숨어든 유쾌하고 발칙한 남자 '녹두', 그런 그를 어머니라 불러야 하는 까칠한 여자 '동주'의 특별한 로맨스가 찾아온다. 〈조선로코-녹두전〉은 인기 웹툰 〈녹두전〉을 원작으로 한다. 출중한 외모에 비상한 머리, 체력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다고 자부하는 상남자 녹두(장동윤 분)가 어릴 때부터 살아온 작은 섬을 탈출하기 위해 과부촌에 잠입하며 흥미로운 이야기는 시작된다. 과부촌 옆 기방에 살고 있는 예비 기생 동주(김소현 분)는 타고난 몸치, 음치, 박치에 불같은 성격까지 더해져 예비 기생 최고령자로 이미 기생이 된 동기들 뒷바라지나 하는 신세. 녹두와 동주의 기상천외한 로맨스가 색다른 청춘 사극의 탄생을 예고한다. 때로는 사랑을 놓고 벌이는 쌉싸름한 로맨스를, 때로는 캐릭터들 간 포복절도할 코미디를 동시에 그려줄 〈조선로코-녹두전〉. 이 가을, 유쾌하면서도 달콤한 감동에 빠져보는 건 어떨지?

▶첫방송 9월 30일 월요일 밤 10시, 2TV

수·목은 발랄한 직진 로맨스!



편견에 갇힌 여자 '동백'을 깨우는 순박+섹시한 남자 용식의 폭격형 로맨스

〈동백꽃 필 무렵〉

삼대가 뿌리박고 사는,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 없는 조용한 동네 '옹산'에 아름다운 미혼모 동백이 나타났다. 사랑스러운 외모와 달리 '미혼모'라는 편견에 갇힌 동백(공효진 분)은 자신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그녀에게 나타난 동네 파출소 순경 용식(강하늘 분). 머리 쓰는 형사 셜록 홈즈가 되고 싶지만 현실은 정반대. 우직, 용맹의 대명사인 용식은 사랑도 직진이다. "기냥 첫눈에 반했고요. 작전이니 밀당은 모르겠고, 무조건 사랑합니다!" 용식의 돌직구 사랑과 무조건적인 응원은 동백을 서서히 변화시킨다.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반기 최고의 기대작인 〈동백꽃 필 무렵〉은 로맨틱 코미디의 여왕 공효진과 군 복무를 마친 강하늘의 출연 소식만으로도 시청자들의 설렘을 폭발시킨다. 〈함부로 애틋하게〉, 〈너도 인간이니?〉 등에서 탁월한 연출력을 인정받은 차영훈 PD와, 첫 장편 데뷔작 〈쌈 마이웨이〉로 필력을 인정받은 임상춘 작가가 3년 만에 의기투합했다.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줄 따뜻한 드라마로 기대된다.

▶첫방송 9월 18일 수요일 밤 10시, 2TV

주말은 따뜻한 우리 이야기



뭔가 되려고 애썼으나 되지 못한 보통 사람들의 인생재활극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잘못된 선택으로 꼬여버린 내 인생을 되찾아 진짜 인생을 사는 이야기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이하 사풀인풀). 메뚜기 알바를 하며 8년째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지만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김청하(설인아 분)는 정의감 넘치는 긍정 매력의 소유자이다. 반면 금수저 비혼주의자 구준휘(김재영 분)는 남의 일에 1도 관심 없는 철저한 개인주의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남녀가 계속되는 인연으로 핑크빛 로맨스를 시작하면서, 서서히 변해간다. 여기에 전직 아나운서이자 현직 재벌가 사모님인 김설아(조윤희 분)가 '소확행'을 모토로 사는 쉐프 문태랑(윤박 분)을 만나면서 진짜 인생에 대해 알아가는 이야기도 눈여겨 볼 포인트다. 흥미진진한 스토리에 설인아, 김재영, 조윤희, 오민석, 윤박에 이르는 최강 라인업까지. KBS가 주말연속극 〈사풀인풀〉로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에 이은 연타석 홈런을 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첫방송 9월 28일 토요일 밤 9시, 2TV

제작기

“전형성을 벗어보자”… 〈밀정〉 2부작


이재석
탐사보도부

지난해 초여름이었을 것이다. 경기도 고양시 모 백화점 앞에 있는 카페에서였다. 오랫동안 교류해온 취재원과 이런저런 잡담을 하다가 문득 ‘촉’이 왔다. 2019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맞춰 ‘밀정’을 한 번 탐구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느낌적 느낌’이었다. 언론계는 말할 것도 없고 학계에서도 사실상 해보지 않은 영역이어서 도전의식을 자극한 데다, 무엇보다 밀정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음산하고 강렬한 느낌에 끌렸다.

그때까지만 해도 밀정 혐의가 짙은 독립유공자 몇몇을 확실하게 특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다. 일본 외무성 사료관에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밀정 관련 자료를 하나하나 끌어모으는 것만으로도 나름의 의미가 있을 거라 봤다. 그런 자료를 토대로 서사를 잘 구성한다면 이른바 ‘기사의 단독성’은 부족하더라도 100주년에 걸맞은 희소성 있는 다큐멘터리는 성립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모든 탐사보도가 그렇듯 파다 보니 무엇이 나왔고, 더 파다 보니 그 무엇이 커져 갔다. 결과적으로는 2부작 다큐멘터리 전체 분량의 80%가 단독성 취재물로 채워지게 됐다.

물론 단독성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재미와 몰입도였다. 독립유공자로 둔갑한 밀정을 고발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100주년을 맞아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다큐멘터리 속에서 어떤 차별화된 지점을 찾아내고 그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정서적 환기를 제공하는 게 중요했다. 제작진 가운데 내가 가장 나이가 많았는데, 구성원들 연령과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다고 부당하게 우겨가면서 이런 식의 꼰대 발언을 수시로 그들에게 주입하곤 했다. 젊은 사람들끼리 만드는 거니까 좀 다르게 해보자. 역사 다큐의 어떤 전형성에서 탈피해보자는 (말은 쉬운) 제안이었다. 그게 성공했는지 자평하기는 건방진 일이겠지만, 여하튼 제작진의 초점은 항상 거기에 있었다. 촬영과 CG, 편집과 음악, 모든 부분에서 그것을 늘 신경 썼다.



시청자들의 많은 댓글 중 몰입도와 재미를 언급하는 것들에 더 눈길이 갔던 것도 그 때문인지 모르겠다. 물론 묵직한 감상평, 그러니까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거나, 제때 청산되지 못하고 일그러진 우리 역사에 대한 분노, ‘현재적 의미의 밀정’ 등을 언급한 댓글에 고마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과분한 칭찬들이다. 그러나 제작진이 가장 노심초사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뭐랄까,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공영방송의 역할이 뭔지 알게 해줬다, 수신료가 아깝지 않았다는 내용의 반응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도 적어두자. 이런 말을 제작자 스스로 옮기는 게 손발 오그라드는 일인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다른 곳도 아닌 ‘사보’니까 잠시 용서되리라 믿는다.

기고

통합 OTT ‘웨이브(wavve)’ 9월 18일 오픈

국내 미디어 산업 견인과 선순환 구조화에 일조 기대



KBS를 비롯한 지상파방송 3사의 ‘푹(POOQ)’과 SKB의 ‘옥수수(oksusu)’가 9월 18일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한다. 웨이브는 지상파의 콘텐츠와 SKT의 마케팅 역량을 모아 서비스와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이다. 향후 웨이브는 국내 OTT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디어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환
콘텐츠연합플랫폼 정책협력팀장/박사

위기를 기회로

2016년 넷플릭스(Netflix)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OTT 시장의 경쟁은 가열되고 있다. 막대한 자본력과 마케팅을 앞세워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글로벌 사업자와의 직접적 경쟁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 간 협력은 필수적이다. 지상파 3사와 SKT 간에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돼 통합 OTT 서비스를 출범하게 된 것이다. 지난 4월 통합 출범 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가입자가 상당히 늘어나 출발은 매우 순조롭다.

기본에 충실한 단순한 변화부터

신규 OTT 서비스인 웨이브는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갈까? 우선 OTT 서비스의 핵심인 콘텐츠를 강화한다. 대작 드라마 등 오리지널 콘텐츠부터 영화, 인기 해외 드라마 등에 이르기까지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한층 키울 것이다. 또한 상품 구성은 단순화해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의 질은 높인다. 즉, 이용자들이 월정액 상품에 가입만 하면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웨이브는 화려하고 거창한 서비스보다 기본에 충실하고 이용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서비스를 추구한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추천 기능 고도화

OTT 서비스에서 추천 기능은 빠질 수 없다. 이용자 개개인에게 적합한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기능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향후 웨이브는 개인의 이용 행태, 취향, 관심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알고리즘을 통해 추천 기능을 고도화한다. 또한, 5G 시대에 부합하는 VR, AR 콘텐츠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로써 이용자들은 단순한 콘텐츠 시청을 넘어 콘텐츠를 통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웨이브는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2020년 상반기에 업그레이드 버전을 선보일 계획이다.

국내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 모색

한국의 OTT 서비스가 해외에서 활성화되면 국내 콘텐츠 사업자에게 새로운 유통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웨이브는 국내에서 쌓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남아시아 등 각국 OTT와의 협력도 추진 중이다. 웨이브는 K-콘텐츠의 해외 유통 플랫폼으로서 글로벌 경쟁의 한 축을 담당하고 국내 미디어 산업을 견인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KBS와 웨이브의 동반 성장 기대

많은 제작비가 필요한 대작 드라마와 예능 등 킬러콘텐츠 제작에 어려움을 겪었던 KBS가 웨이브를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9월 30일 첫 방송 예정인 월화드라마 〈조선로코-녹두전〉은 웨이브로부터 제작비 대부분을 투자받아 KBS 2TV와 웨이브에서 동시에 방송 또는 서비스된다. KBS는 웨이브로부터 제작비를 투자받아 고품질 콘텐츠를 만들고 웨이브가 유통해 수익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KBS와 웨이브의 동반성장을 이룰 계획이다.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모든 이산가족이 만나는 날까지 KBS가 함께 합니다 〈디아스포라〉 프로젝트!

http://diaspora.kbs.co.kr/









1983년 6월 30일 시작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138일 동안 전 국민을 울린 생방송의 감동이 2019년 KBS 〈디아스포라〉 프로젝트로 이어진다. KBS는 9월 3일, '방송의 날'을 맞이하여 〈디아스포라〉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2019년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와 외국인들에게 이산가족의 아픔을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함이다.

〈디아스포라〉 프로젝트는 특별 홈페이지를 통해 1983년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방송의 감동을 재조명하고 새롭게 제작한 콘텐츠들을 더해 대한민국의 이산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KBS는 앞으로 일제 강점기 및 해외 이민사와 관련된 〈디아스포라〉 프로젝트를 지속하여 공영방송으로서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디아스포라(Diaspora): 그리스어로 '흩어짐', '이산'을 뜻함.

이산가족 상봉, 감격의 순간이 재탄생되다!

KBS 디지털미디어국은 〈디아스포라〉 프로젝트를 통해 1983년 방송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의 방송 영상 중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린 100여 편의 사연을 5분 내외의 영상으로 재편집해 특별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제공했다. 각 영상에는 영어 자막도 제공되어 외국인들에게도 당시의 감동을 전달한다. 공개된 비디오 클립에는 이산의 아픔을 품고 살아온 평범한 이웃들이 대한민국을 뜨겁게 울린 감동의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1·4후퇴 때 헤어진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 "어머니, 아버지 다 살아계셔서 고맙습니다. KBS 만세!"를 외친 곽만영씨의 사연부터, 자신의 이름도 모르고 살던 여동생이 오빠를 만나 오열하는 장면에 전 국민이 함께 눈물을 흘렸던 허현철, 허현옥 남매의 사연까지. 분단의 슬픔과 가족 상봉의 기쁨이 생생하게 전달된다.

다양한 콘텐츠로 전 세계, 전 세대에 평화 메시지 알려

2019년 시청자들의 정서에 맞도록 새롭게 제작한 콘텐츠들도 공개됐다. 역사 교사 최태성이 알기 쉽게 풀어내는 〈최태성의 한국전쟁〉과, 유명인들의 이산 사연을 담은 〈마이 워 스토리〉가 그 주인공이다. 국내 최장수 MC 송해, 1983년 이산가족 찾기 방송의 진행자인 이지연, 가수 강산에의 평양 공연 뒷이야기 등이 담겼다. 새로 제작한 콘텐츠들은 재외동포 대상 채널인 'KBS World 24'를 통해 해외로도 방송된다. 전쟁의 비극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한다. 이산가족이 생겨난 배경과 맥락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웹툰 형식의 스토리페이지도 선보여 젊은 세대와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는다.

AI 프리뷰 도입으로 제작 혁신 실험

〈디아스포라〉 프로젝트는 디지털미디어국이 자체 개발한 AI 프리뷰시스템을 제작에 적용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453시간에 이르는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방송분 중 100여 편의 사연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이 투입되어 방송 영상을 텍스트화하는 프리뷰작업이 선행되어야 했다. 새롭게 개발된 AI 프리뷰시스템은 AI가 방송 영상을 텍스트화하고 메타 데이터를 화면에 표기하여, 예산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게 했다. 디지털미디어국은 AI 프리뷰시스템의 완성도가 검증된 만큼, 앞으로 프로그램 제작에서도 AI 프리뷰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고만고만? 알고보면 큰 차이 고고차 상담실 #9

성평등센터에서는 성(性), 젠더, 성희롱·성폭력 이슈와 관련해 KBS 구성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접수하여 사보 연재를 통해 답변해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성평등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성평등센터 전화 ☎ 02) 781-2777
메일 sangdam@kbs.co.kr

Q 저는 3년차 직원입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일이 있어 어렵게 이메일을 씁니다. 저희 팀은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팀장님, 부장님 다 좋으시고 팀원들과 관계도 좋습니다. 특히 부장님은 직원들의 생일도 챙겨주실 정도로 직원들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분입니다. 지난 겨울 아주 추운 날 회식을 했습니다. 2차 회식 장소로 이동을 하던 중 부장님과 제가 급히 사무실에 들러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면서 제가 "춥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부장님이 "추워서 어떻게 하냐"면서 갑자기 뒤쪽에서 저를 꽉 안았습니다. 저는 너무 수치스러웠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괜찮습니다." 하고 몸을 뺐습니다. 부장님은 진심으로 추운 저를 걱정하고 본인 때문에 고생한 것을 미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 납니다. 이런 것도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혼란스러운 직원)

A 혼란스러운 직원님의 당황스러운 상황이 제게도 그려집니다. 평소 좋은 관계를 가졌던 부장의 갑작스러운 포옹에 수치심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자문하는 듯합니다. 수치심을 가한 상대의 얼굴이 나를 염려하는 얼굴일 때, "왜 저를 안으시는 거죠?"라고 누구도 답하기 어렵습니다. 직원님은 부장이 '성적인 의도 없이 한 행동'을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남성 상사와 여성 직원 둘만 있는 상황에서, 남성 상사가 여직원을 뒤에서 안는 행동을 상식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성희롱으로 인정합니다. 행위를 한 사람의 마음은 누구도 짐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도'가 아닌 '행위'를 기준으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갑작스럽게 뒤에서 사람을 끌어안는 행위는 강제추행의 대표적 예시(기습추행)로도 거론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부장의 행동은 직원님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에게 충분히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될 것입니다.

-성평등센터 성폭력전문상담원 이어진-

방송위기 타개 위한 '방송의 날' 특별 세미나



한국방송협회는 9월 3일 방송의 날을 맞아 매년 개최하던 축하연 대신 '한국 방송산업의 위기와 대응방안, 글로벌 경쟁 격화와 지상파 방송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특별 세미나를 지난 2일 방송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방송의 위기와 대응에 대해 환경·제도적인 측면과 내용·행위적인 측면으로 나눠 심층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정수영 MBC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미디어 공공성을 강조하며 "지상파는 공공성과 산업성의 딜레마에 빠져 있으며 한국에서만 유독 지상파 위기가 두드러진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발제자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는 "방송산업이 시청자와의 연결 고리가 약해졌다"며 "수용자들을 TV로 끌어들일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양한열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과 정두남 KOBACO 연구위원, 정미정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최민음 KBS 공영미디어연구소 연구원,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언론의 역할은?'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언론의 역할' 토론회가 지난 8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KBS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 2·18 안전문화재단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현정 서원대 교수(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책임연구원)는 "언론은 재난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전제를 갖고, 재난 대비와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보도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성우 우송대 교수는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재난 보도 관련 ICT 모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따라 재난 보도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재난 상황을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려주는 것을 넘어 언론이 재난 대응과 대비, 복구, 추후 대책 마련과 예방 등 일련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KBS '2019 평화 음악회-꿈을 꾸다' 개최



KBS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2019 평화 음악회-꿈을 꾸다'가 지난 8월 18일 KBS홀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평화를 이룬 역사적인 순간들을 '아픔과 상처', '평화의 시작', '영원한 평화'까지 테마별로 정리한 이번 평화음악회에는 뮤지컬 배우 김소현·손준호 부부, 피아니스트 이루마, 국악인 오정해, 서영은, 타이거JK & Bizzy, 인순이 등 다양한 영역의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올라 약 80분 동안 감동의 하모니를 선사했다. 특히 이번 평화음악회에서는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맞아 배우 남상미의 시낭송으로 그가 꿈꿨던 '평화'를 되돌아보는 순서가 마련됐다. '2019 평화 음악회-꿈을 꾸다'는 8월 18일 오후 5시 40분부터 80분 간 1TV를 통해 생방송됐다.

2019 KBS-ABU 국제포럼 열려



KBS는 ABU(아시아 태평양 방송연맹)와 함께 '사회 통합과 평화를 위한 미디어의 역할'(The Role of Media in Social Integration and Peace)을 주제로 한 국제포럼을 지난 8월 19일과 2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 기조연설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평화 구축의 핵심은 갈등 해결과 지속 가능한 평화의 문화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면서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미디어 언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동 KBS 사장은 "이념과 인종·종교 간 갈등 치유와 통합을 위해 방송의 역할을 토론하자"며 "전 세계 미디어 관계자들의 연대와 응원 속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여정은 올바른 방향을 찾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상을 축하합니다



서울 드라마 어워즈 한류 드라마 부문	
상	우수 작품상
작품명	〈닥터 프리즈너〉



이달의 PD상 라디오 특집 부문	
작품명	〈내 핏속엔 우리말이 흐르고 있다〉
수상자	황형선 PD, 김민정 작가

감사실 적극행정 면책제도 실시

앞으로 적극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공익성, 타당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책임을 경감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실시된다. KBS 감사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면책 등 감사 소명제도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다. 감사 과정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다. 운영기준은 코비스에 공지됐으며 적극행정, 적극행정 면책, 감사 소명제도 등의 정의와 적극행정 면책의 범위와 기준, 접수 및 처리 방법 등이 자세히 정리돼 있다.



1945년 히로시마의 극적인 사랑 이야기

2019년 추석 연휴, 깊은 울림을 담은 KBS 드라마가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11일과 12일 2부작으로 방송 예정인 2TV 추석 특집 드라마 〈생일 편지〉는 잊지 못하는 첫사랑으로부터 생일 편지를 받은 뒤, 1945년 히로시마의 기억 속으로 들어간 노인 김무길(전무송 분)의 이야기를 담는다. 근육이 굳는 희귀병과 암으로 투병 중인 91세 무길은 손녀인 김재연(전소민 분)의 보살핌을 받던 중, 평생 찾아 헤맸던 고향 친구이자 '짝'인 여일애(정영숙 분)가 보낸 생일 편지를 받고 가슴이 요동친다. 무길은 손녀 재연에게 일애를 찾아보라며 1945년의 특별한 이야기를 꺼내놓게 된다. 〈생일 편지〉는 일제강점기 말부터 광복을 거쳐 한국전쟁까지 한국 근대사의 산 증인인 우리 시대 평범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청춘 시절'을 재조명하며 가족 시청자들에게 눈물 어린 위로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죽기 전 꼭 만나고 싶은 한 사람

1945년 어느 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린 첫사랑 17세 여일애(조수민 분)를 그리워하던 17세 김무길(송건희 분)은 일애가 히로시마에서 술집 허드렛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일애를 찾기 위해 히로시마로 징용을 허약한 형 대신 가겠다고 나선다. 히로시마에서 극적으로 재회한 두 사람은 애틋한 사랑을 꽃피우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서로 엇갈리게 되며 가슴 시린 여운을 남기고 만다. 전소민, 전무송, 정영숙, 송건희, 조수민, 김경남, 김희정 등 걸출한 연기력의 신·구 배우들이 출연해 가슴 먹먹한 사연을 담아낸다. 추석 특집 드라마 〈생일편지〉는 〈결혼 못하는 남자〉, 〈감격시대 : 투신의 탄생〉, 〈아이가 다섯〉을 연출한 김정규 PD와 드라마스페셜 〈닿을 듯 말 듯〉, 〈나의 흑역사 오답노트〉 등으로 호평받은 배수영 작가가 의기투합해 한가위 안방극장을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9월 11일~12일 수·목요일 밤 10시, 2TV

KBS 사보
www.kbs.co.kr

발행인 양승동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편집인 박태서 **취재** 황상길 우수경 나은정 조동하 정환욱
전화(문의 및 구독신청) 02)781-2824, 2828, 2817
사진 이민규 장병희 홍정환 **디자인·제작** 김채원 도두커뮤니케이션
〈KBS 사보〉는 KBS 홈페이지(www.kbs.c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